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2022년 여름공동체생활 안내 >

1. 기본 계획
 - 1) 기간: 7월 29일(금) - 31일(일)
 - 2) 주제: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마 28:10>
 2. 매일 일정
 - 1) 29일(금) 19:30-22:00 <코이노니아1> 찬양 말씀 기도. 그룹모임
 - 2) 30일(토) 19:30-22:00 <코이노니아2> 찬양 말씀 기도. 그룹모임
 - 3) 31일(일) 11:00-12:30 <주일공동예배>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
 3. 준비 사항
 - 1) 성찬식 참여를 위한 마음의 준비
 - 2) 물질의 나눔: 새터마을교회(권혁신목사) 건물개축 지원
 - 3) 참가회비: 개인 2만원, 가정 5만원 기준으로 자율납부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서를 전달합니다.
1. 제67기 공동체지도력훈련을 내일까지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2. 임채정목사님께서 8월부터 미국에서 연구하는 해로 지내십니다.
 아들 임요섭군은 7월 24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흥정길 장로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0 호

2022년 7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성경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글씨를 잘 못 읽거나 문자가 없을 시절에도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여러 경험을 이야기 해 줍니다. 책 대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화나 구전동화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존재하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노라면 항상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오수의 개'로 알려져 있는 오수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시골에서 그 곳을 지날 때면 그 곳의 지명을 말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말 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 주제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 성경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은 가끔 한 번씩 들려주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며, 자신에게 관계 되어 있는 것은 또 들어도 즐겁고 재미있어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중요장면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한 장의 사진의 모습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성장하면서 책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영상으로 텔레비전과 영화 등으로 이야기 보는 것을 좋아 합니다.

영화중에서도 시리즈물로 여러 편이 연관되어 나오는 영화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만든 사람과 수고해주신 분들 이름 후에 쿠키영상으로 다음을 예고하거나 다른 영화와의 연결을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내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면 찾아내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 있어서 즐거움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까지 다섯 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와 함께 잘 풀어놓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표현방법이나 관점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지명과 제단, 사물의 이름 등에 자신들이 겪어왔던 경험들을 반영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그곳에 지나갈 때나 왜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생활공동체가 함께 교회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지도력 훈련과 여름 공동체 생활을 준비 할 겸,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겸, 바쁜 시간을 내서 공동체의 여러 곳을 청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자연 예배당 앞에 있는 약속3이 적혀 있는 돌을 닦고 십자가 동산의 가운데 십자가 밑에 있는 돌을 다시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자연 예배당을 짓게 된 이유가 적혀 있고, 십자가 동산의 돌무더기의 숫자가 13개인 이유 같은 것들이 사랑방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갈 법한 것들인데 같이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로 등장하니 그것과 얽혀있는 이야기와 생각들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공동체의 신앙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은 당연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모르면 규칙과 규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게 될 때는 그 속에 있는 뜻과 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새롭게 환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활기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한주간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신명기 8장
 제목 :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09 331 249 301

관찰]

1-10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조건
 해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11-20 모세가 걱정하는 것
 해석: 삶이 풍요로울 때, 여유가 있을 때, 절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 버리기 쉽다.
 적용: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듣자 - 우리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자.
 전하자 - 우리공동체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자.
 경험하자 - 지도력 훈련, 여름공동체 생활

신명기의 설교 호칭
 모세는 '당신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우리, 당신들
 해석: 모세 -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로 당신들을 강조, 주님의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
 적용: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하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

성서일기

외로운 자리

요즈음, 저는 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인 듯합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생긴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제 방에서 컴퓨터와 함께 혼자 지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떨치려고 대답지 않게 직원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직원들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는 표정입니다. 그런 표정을 보면 오버한 제 모습이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저는 용기 내어 직원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말을 많이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 용기 덕분에 직원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제 직업상 사고 및 민원을 많이 겪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고 및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모두 관리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해결사 노력도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도와줘야 할 책임 부서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외로움이 은혜로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도자, 교역자분들도 이런 외로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니 어려운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심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공동체 윤호중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편 96 : 9-10	인도자
* 예배의 찬송	15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에스겔서 18 : 21-22	인도자
*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321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민수기 13 : 25-33	설교자
성가대 찬양	542	공동체
설	" 두려움을 벗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47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516(1)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동인 윤경옥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하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날마다 훈련 시키시는 하나님
저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을 벗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선출된 열두 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귀에 도착해서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열두 명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의 최남단에서부터 북쪽 경계 근처까지 남북 전체를 관통하며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일을 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다.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지나가는 여러 길이 존재합니다. 이 길목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지도자들은 그 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그 땅 거민이 자신들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벗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를 겪었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여전히 강한 자들 앞에 굴종하고자 하는 종의 근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비록 신분은 바뀌었지만, 체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성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수요일까지 학교에 왔습니다. 모두들 방학이라서 좀 허전하긴 했지만 땀 흘리며 주변을 정리하시는 생활공동체 어른들이 계셔서 오며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즐거웠던 여름 여행을 생각하며 각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갯벌, 수영장, 숙소, 함께 한 친구들, 좋아서 춤추는 모습 등등 그림을 보여주는 꾸러기들 얼굴에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꾸러기 밭에서 날마다 익어가는 방울토마토를 따기도 하고 풀도 뽑았습니다. 모기들 때문에 밭에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생활공동체 밭에서 오이를 따서 잘라 나누어 먹기도 하고 토마토도 따먹으라고 하셔서 썰어서도 먹고 쥬스를 만들어서도 먹었습니다. 토마토 배는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 밭에서 따서 특별히 맛있었던 걸까요? 다 먹기에는 좀 많다 싶었는데 정말 맛나게 남김없이 잘 먹었습니다. 방학을 해도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와서 꾸러기 밭을 살펴보고 방울토마토도 따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날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들은 책이랑 교구랑 쓰레기랑 이것저것 정리를 했습니다. 꾸러기들은 자기 사물함을 정리해서 집에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어 챙기고 자기 의자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날 오지 못한 친구 의자랑 다른 것 정리하느라 바쁜 선생님 의자도 자원해서 대신 닦았습니다.

방학해도 서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자고 약속하며 서로 꼭 안아주며 학교 인사를 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이제 본격적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께 하루계획표를 그려 보내고 일정표를 짜는 등 방학숙제에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학교의 방학숙제는 어린이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지 직접 고민하며 냅니다. 선생님은 그 숙제를 받아 각 학생의 특성에 맞게 많은 숙제는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어린이와 면담을 하며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숙제이기에 어린이들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숙제도 있는데 그것은 일기입니다. 일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피드백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이나 친구와 함께 노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부족했던 관계도 채워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한 달여의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올 지 기대가 됩니다.

학부모 면담이 월요일까지 있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대화 나눕니다. 웃고 울기도 하며 어린이와 가정, 학교의 생활을 돌아보며 통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어린이만을 위한 계획을 함께 그려봅니다. 이시간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한 학기 수고하신 선생님, 부모님, 어린이들 방학 잘 보내세요~!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방학 첫 주간 선생님들은 학부모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만나서 멋쟁이들의 한 학기 생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 집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 집니다. 이 시간은 이해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이 한 학기 동안 훌쩍 큰 멋쟁이들을 대견해하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에피소드에도 활짝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면 멋쟁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우리 멋쟁이들!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거 알겠죠? ㅎㅎ 행복한 휴식과 보충의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여름

작년 여름이었다. 예나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서,

“엄마는 무슨 계절이 제일 좋아?”

“엄마는 봄. 피어나는 꽃, 새싹, 매일 돌아나는 그 색이 너무 예뻐!”

“난 여름!”

“왜? 더운 것도 싫지만 모기 때문에 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싫은데!”

“여름은 생명력이 제일 왕성한 계절이잖아. 온 세상에 생명이 왕성한 이 계절이 난 제일 좋아요.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도 좋고~”

예나가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침 우리 차는 초록나무 숲이 웅장하게 드리워진 길을 지나고 있었고 앞 유리창에 초록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시간 마법, 마법이 일어났다! 짜증났던 여름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는 것이다. 온 세상이 생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나니아 속 풍경과 같았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외침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같이 들렸다. 그 날 그 멋진 협주곡을 듣게 되었다.

그 날 이후로 내게 여름은 다르게 다가왔다.

올 해 만난 여름도 멋지다. 베어내도 또 자라나는 풀, 오솔길 옆 어제와 다르게 더 키가 큰 풀, 그 사이에 웃고 있는 꽃, 초록 잎사귀들!

초록이 가득한 이 여름, 크게 숨 들이켜 그 생명력을 마음에 새겨보겠다.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짙은 초록이 되어보리라.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마태복음 20장 20~28절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기후변화를 위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가 함께 연합해갈 때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그 길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창세(대안)학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자를 통해 계속 채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금요일에 방문하는 수유제일교회 여전도회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 공동체지도력훈련과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여전도회 수련회 장소 대여와 여름 공동체생활 전 주변 정리를 목표로 대대적인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크게는 폐기물 정리와 각처의 제초 작업이 있었고, 그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했던 의자를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의 정리와 꼼꼼히 구석구석의 먼지를 없애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부터 설거지까지 베다니 하방 주방 분들과 공동식구들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방문하신 분들이 너무 흡족해하시며 감사를 표현하셨을 때 뿌듯한 마음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랑방은 손님들이 머무는 곳을 실감하며 함께 일하면서 다시 한 번 사랑방 식구들의 섬김의 저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더위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나눠준 공동 식구들에게 정말 감동했다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불평 없이 구슬땀을 흘려준 공동체 자녀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여름 일정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